

정기간행물 출판기사 색인

- 노벨상 브로드스키 시집 출간 경쟁-「소리없는 노래」 「20세기의 역사」 등 잇달아 나와(동아일보 11월 10일 宋煥彥기자)
- ‘완벽한 문장’ 번역률 90%-科技院·한국후지쓰社 개발 ‘日·韓 자동시스템’ 실용화/어려운 과학 논문·잡지도 척척(서울신문 11월 10일)
- ‘저작권 위탁 관리업’ 14개社서 허가신청-문공부 1차로 8개社에 허가증 교부할듯/대부분社 대리·중개업무 바라/인테코·신원·IPS 선두주자(한국경제신문 11월 11일)
- ‘현대인의 自我’ 실종으로 묘사한 소설 눈길-「가슴없는 세상」 「브론토자우르스」 「不妊時代」 등/대량사회 속 위축되어가는 인간상황 표현/비극적 결말 피해...부재 통한 자기증명 암시(매일경제신문 11월 11일 文逸기자)
- ‘국내발행 잡지 2,295종’ 언론연구원 조사-61년의 7배, 총 부수 3천5백만부/월간이 54%, 無價誌는 72%(서울신문 11월 13일)
- 문고판도서 전문화 추세-명작 번역 탈교...과학·사진 등 다양/4천종...중편소설 시리즈도 기획(조선일보 11월 13일 曹良旭기자)
- 37년만에 햇빛 본 「鄭芝溶연구」-해금조치따라 金澤東교수가 출간/시인세계·시적 체험 폭넓게 소개(중앙일보 11월 13일 奇亨度기자)
- ‘鄭芝溶은 유물론자 아니다’-「鄭芝溶研究」 시세계 분석...‘자진 월북’ 처리 잘못(한국일보 11월 14일)
- 어린이 佛者들의 티없는 신앙수가 「눈물로 배운 讚佛歌」 출간-무애원 설봉스님 포교역정 담아/움막방당 7년 눈물겨운 사연...산문·동시 120편을 선정 수록(서울신문 11월 15일)
- 마이카붐따라 관련 전문지 홍수-잡지 등 8종에 업체들은 社外報 무료 배포-손수운전자 겨냥한 편집 방향에 좋은 반응(한국경제신문 11월 15일 申允燮기자)
- 백여 낱도 돌며 詩想 30년 ‘섬마을

을들의 애환 노래’ 李生珍씨의 「섬에 오는 이유」 출간-풍물사진과 함께 문학적 서정 넘치는 印象記/주민들 신고로 한때 간접용의자로 몰리기도(경향신문 11월 16일 孫東佑기자)

- ‘잊혀진 시인’ 白石에 새로운 시선-51년만에 시 전집 출간되는 등 관심 일어/素月 선망...향토색 짙은 시어로 훈훈한 정서 담아(매일경제신문 11월 18일 文逸기자)
- 白石詩전집 반세기만에 출간-첫 시집 「사슴」 외 시 61편·산문 7편 수록(한국경제신문 11월 18일 朴聖姬기자)
- ‘拉·越北, 在北, 실종 작가’ 문학사적 연구 활발-문단·학계서, 鄭芝溶·金起林·白石·金史良 등 대상...30~40년대 잊혀진 문인/논문 모음집·전집 출간/‘文學의 총체성 회복 위해 바람직’(중앙일보 11월 19일 奇亨度기자)
- 달려 겸한 총집 「이애주한관춤 그림책」 펴내-李愛珠교수, 대형사진 12점에 해설 곁들여(중앙일보 11월 19일)
- ‘白石詩集’ 50년만에 햇빛-충북대 李東洵교수, 시 94편 찾아내 출간/30~40년대 주요 시인...북한서 숙청 당해(서울신문 11월 20일)
- ‘古書수집’ 대중취미로 번진다-경매전서 매회 2천여점 거래...5백년전 것 5만원 정도면 구입/“교양 높이고 문화보존에도 기여”(서울신문 11월 20일 朴康文기자)
- 컬러사진 곁들인 ‘헌법 책’ 나온다-현암사서 이달 출간 「대한민국 헌법」/‘법의 생활화’ 새전기/디자인과 사진작가 합동작업/모든 조문 한글 표기...뜻풀이도(조선일보 11월 20일 曹良旭기자)
- ‘정치공방이 소설보다 재미있다’-公演·출판계 선거불황 허덕/서적·레코드 등 판매고 30% 가량 줄어(조선일보 11월 21일 李容柱기자)
- 저자와의 대화/「조선초기 身分制연구」 낸 劉承源교수-조선초 신분제 법적 평등 이뤄/良·賤 2분제...천인은 극소수, 양인은 상당수준/“고리타분한 유교신분사회 인식 없어야”(한국일보 11월 21일 金龍善기자)
- 소외된 사람들의 ‘明과 暗’, 양귀자씨 연작소설집 「원미동사람들」 출간-길들여지고 왜소해진 율분 압축/삶의 조각들 섬세하게 모자이크(한국일보 11월 21일 金薰기자)
- ‘올들어 소설 504편 선보였다’-

시는 2,956편으로 지난해보다 42% 늘어/玄吉彥씨 소설 8편, 鄭漢淑씨 시 68편 최다(중앙일보 11월 23일)

- 퍼스컴으로 만든 책 국내 첫선-애플 컴퓨터로 펴낸 「알기쉬운 BASIC 프로그램 모음」/원고작성에서 교정·제판용 原圖까지 완전 자동으로(경향신문 11월 23일)
- 국내 출판물 ©표시 외면-세계저작권협약 가입 두달, ‘실리 없다’ 저작권 스스로 포기/업계 각성, 조약국 이미지 심고 금지 찾아야(매일경제신문 11월 24일 文逸기자)
- 출판업계도 선거特需 재미-「12·12사건 鄭昇和는 말한다」 「大權의 조건」 등 대권주자 관련 책 70여종... 최하 1만권은 팔려(동아일보 11월 24일 宋煥彥기자)
- ‘수준작 늘고 제작기술 돋보여’ 28회 ‘한국출판문화상’ 출품도서 분석-첫 3백종 돌파...문학이 가장 많아/종교·교육 분야는 올해도 저조, 역사분야 51종 작년 비해 두 배나/출판계 양적성장 나타내는 대형기획물 30여종(한국일보 11월 24일 金龍善기자)
- 현대사 이면 소재 문학작품 늘어-「南勞黨」 「뒤로가는 시계」 등 속속 출간/현장체험 인물 手記·증언 등을 토대로/“작가의식 담아야 문단에 기여”(매일경제신문 11월 25일 文逸기자)
- 이달의 문학/우리시대 ‘산자의 속죄의식’-姜恩喬, 양성우, 鄭浩承 신작시집 발간/「바람노래」 각성된 삶에 대한 강렬한 회고, 「그대 하늘길」 외롭게 죽은자들에게 빚진 삶, 「새벽편지」 새벽을 기다리는 그리움 노래/정현기·曹南鉉씨 대담(조선일보 11월 25일 曹良旭기자)
- 잡지 복간·창간 준비 본격화-80년 이전 폐간지, 7~8개 단행본 출판사들/「創批」·「文學과知性」·「思想界」 준비 매듭/“定刑物 등록법시행령”의 발표만 기다려(한국경제신문 11월 25일 李成九기자)
- 출판사 신규등록 러시-‘10·19자유회 발표’ 이후의 움직임/한달간 3백여개...서울 90% 차지/「創作과批評」 등 등록취소된 잡지도 복간 서둘러(동아일보 11월 26일 宋煥彥기자)
- 절실한 호소, 차가운 관찰력-박세현의 「꿈꾸지 않는자의 幸福」/첫시집이론 6~7년만의 독특한 위치...자기성찰 목소리 뚜렷(경향신문 11월 26일 문학평론가 李東夏)

- 우리 음식은 ‘여유의 맛’, 음식연구가 姜仁姬씨 「한국의 맛」 출간-재료·양념 넉넉하게 써야 제맛나/궁중요리 등 7백여 조리법 재현(조선일보 11월 26일 朴善二기자)
- 문공부 홍보정책실 폐지-公報局을 室로 확대 홍보수행/문화·예술국 분리 운영 전문화(동아일보 11월 26일)
- ‘12·12’ ‘광주’ 다룬 논픽션 강세/단행본 등 일반도서는 계속 침체/노벨문학상 작품 뒤늦은 발간붐(조선일보 11월 27일 曹良旭기자)
- 문공부 홍보정책실 폐지-직제개편안 확정...문화·예술국 분리(조선일보 11월 27일)
- 洪萬春씨 「鎭南浦 반백년사」 발간-대동강 하구의 신흥도시 진남포의 개항후 역사와 풍물 실어/“고향이 잊혀져가는 안타까움 달래며 집필”(조선일보 11월 27일 金泰翼기자)
- 李文烈 「일그러진 영웅」 베스트셀러 1위...김지하 시집 「五賊」은 5위로 뛰어올라/번역작품 강세 유지(경향신문 11월 27일 安健憐기자)
- 창작물 ‘주춤’ 번역물 ‘러시’-청소년 대상의 외국소설 잘나가/시는 노벨상 브로드스키 「소리없는 노래」만 짝짝/「김지하」 붐 계속, 정채봉 「초승달과 밤배」 으뜸세(중앙일보 11월 27일 奇亨度기자)
- 저자와의 대화/「한국古代社會史연구」 펴낸 崔在錫교수-「三國史記」 초기기록은 사실/日학자들이 과학적 근거 없이 왜곡·날조/“한·일 古代관계 규명에 새로운 계기될 것”(한국일보 11월 28일 金龍善기자)
- 梁貴子씨의 「원미동 사람들」-11편의 작품으로 고달픈 삶을 대변/연작소설의 새 장르 가능성 구체화(중앙일보 11월 30일 문학평론가 權寧珉)
- 책의 ‘인격’을 보호하자-시리즈물 획일적 표지는 개성 무시한 것...겉만 화려한 ‘한탕주의 출판’도 개선돼야(스포츠서울 11월 30일 장운우교수)
- 승려생활 10년 ‘절문화’기행-시인 高銀씨 60곳 체험기록 「절을 찾아서」 발간(경향신문 11월 30일)
- 정치광고서적 출간 바람-「선거와 정치광고」 「정치선전과 정치광고」 등 3종 나와(동아일보 12월 1일)
- 「사회인식론」 펴낸 車仁錫교수-어떻게 하면 인간이 가장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 수 있는가 “자유·평등

- 사회의 조건 구명해봤죠”(동아일보 12월 1일 宋煥彥기자)
- 소설가 玄吉彥씨 3년 연속 최다 발표, 월간 「文學思想」 문인작품 발표량 조사-전체 1.5배 증가...鄭漢淑씨 시 68편 이례적/중편소설 작년의 2배 ‘대풍작’/무크·단행본 급증, 실제 발표수는 훨씬 많아(매일경제신문 12월 1일 文逸기자)
- ‘暴力的 상처’ 언어힘으로 표출, 임동화 첫 시집 「매장시편」 발간-광주 아픔이 사적 공간에 내면화/명상의 문체에 꽃겨남의 정서가(한국일보 12월 1일 金薰기자)
- 創作社 아동문고 100권 기록-발간 10년만에...단행본으로 국내 처음(한국경제신문 12월 2일)
- ‘창비아동문고’ 백권 발간-제3세계·약소민족 동화 소개/아동문학 대중화운동에 기여(한국일보 12월 2일)
- 겨울 시단 이색 시집 두권-오늘의 대학모습 담은 연작시 공방규의 「大學日記」/제목 없는 109편의 명상시 崔明吉의 「바람속의 작은 집」(조선일보 12월 2일의 曹良旭기자)
- ‘화제작 많아도 우수작 드물어’ 6개 문예지 87년 결산 특집/내용, 진부한 시대고발·리얼리즘 수준 못벗어나/젊은층을 중심으로 이념지향적인 시 발전/「5월문학」 대두울 문단 특경(매일경제신문 12월 2일 文逸기자)
- 시·소설의 소재·주제 선택에 변화, 5개 문예지서 87문학 결산-노동시·농민시집 등 예년 갑절 출판/정치적 격변기 다룬 소설 많이 나와/고은(시)·玄吉彥씨(소설) 높이 평가(서울신문 12월 4일 任英淑기자)
- 올해의 문학 총정리, 이 달의 문예지-민중소설, 익명시의 흐름 재조명/문인들 송년단상, 세월의 아픔 잔잔히 토로/‘금서’ 문명비평 ‘남성을 보호하라’ 눈길 끌어(스포츠서울 12월 4일 윤홍식기자)
- 국제저작권조약 가입 두달, 전문지 중심 외국계약 점증/영어·과학·컴퓨터 잡지 두드러져/단행본은 탐색, 내년 본격화될듯(조선일보 12월 4일 曹良旭기자)
- ‘창비아동문고’ 백권 돌파-출범 11년... 위인전·창작집 등 내용 알차 서구이벤도 정서 지양, 희망찬 어린이꿈 엮어/꾸밈없는 표현 어른에게도 인기(중앙일보 12월 4일 奇亨度기자)